



2024년 / 12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4일(수)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12월 5일(목) : 2025년 달력 발송

■ 연구원 소식

- 2024년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송년회 안내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송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던 귀한 기운을 다시금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2024. 12. 14(토) 18:00~20:00
- 장소: 노랑토랑 연회장(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62 / 063-229-7948)
- 주요일정
 - 개회식
 - 우수 회원 시상
 - 축하공연
 - 도서 나눔을 위한 기부 도서 모집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 바라며 도서나눔에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출간 5년 이내의 책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청년의 죽음 – 1990. 12. 06.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의 재판정에서 검찰은 별로 한 것도 없는 서른도 안 된 젊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유인물 몇 개 뿌리고 데모 몇 번 기획하면 '넥타이 공장'에서 새파란 젊음들을 보내 버릴 수 있는 것이 긴급조치시대였고 유신시대였다. 재판장은 상기된 어조로 피고들의 진술을 허락했다. 피고인들은 당연히 침착을 잃고 있었다. 짐짓 의연한 척 이야기하긴 했지만 충격과 공포의 색깔을 지우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그 때, 한 청년의 목소리가 재판정을 울렸다. 사형 구형이라는 준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얼굴이 새파래지기는커녕 얼굴 가득 봄바람 같은 미소까지 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렁우렁한 목청이 재판정을 흔들었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사형이라는 영광스런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1992, 180 ~181쪽)

공포를 녹여버리는 웃음. 그 넉넉한 웃음을 죽음 앞에 선보인 사람, 그는 김병곤이었다. 1952년생 용띠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 스물 둘. 그날 법정에서 선 이들 가운데 가장 어린 청년이었다. 정권은 그 약관의 청년에게 죽음을 구형했고 그는 그것을 영광이라 받아쳤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별안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했을 때를 김병곤은 생전에 이렇게 회고했다.

"10월 유신이 났을 때 나는 학교 옆에서 하숙을 했어. 하숙방이 두서너 평 되는데, 그 방에 무려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전부 다 결의를 한 거야. 이제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사생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아예 없애야지, 그냥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다....."

시커먼 총각들의 하숙방 결의. 김병곤은 그 결의대로 살았다. 다행히 그는 1974년, 죽음은 면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은 수시로 방문했다. 박정희가 죽은 뒤도 마찬가지였다. 평온한 삶을 살 기회도 있었다. 좋은 직장도 가졌고 결혼도 했고 두 딸도 거느렸다.

하지만 그는 그 행복의 호수에서 거친 바다로 돌아왔다. 교회 야학에서 만나 한때 단맛 나는 신혼을 보내기도 했던 그의 아내 박문숙의 기록에 따르면 "군부독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두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틈도 없이 자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극은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뤄져도 끝나지 않았다. 김병곤 최후의 구속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부정투표함 의혹이 불거진 "구로구청사건" 때였다. 부정 투표가 맞다고 해도 그해 대통령 선거의 대세에 변동이 없었겠지만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그는 구로구청에 남아 농성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가고 말았다.

그는 생의 마지막 옥살이에서 병을 얻는다. 위암이었다.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배에서 뭔가 잡히는데도 교도소 의사는 웨스탈만 줬다고 한다. 병의 정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1990년 12월 6일, 평생 몇 번 안아보지도 못했을 두 딸과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뜬다. 아내는 이후로도 남편이 살아내지 못한 세월을 살고 채 끝내지 못한 일을 이으려고 애쓰며 신산스런 세월을 건디다 2014년 4월 세상을 등졌다.